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

-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오 세 정*

〈차례〉

1. 서론
2. 서사구조와 탐색 가치
3. 남성과의 관계양상과 대립 체계
4. 새로운 관계 형성과 농경신의 정체성
5. 결론

<국문초록>

유화는 한국의 대표적 건국신화인 <주몽신화>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이며, 자청비는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큰 굿 중 농경신에 대한 제의에서 불리고 있는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이다. 이처럼 다른 전승맥락을 가진 두 신화는 한반도 북쪽과 남쪽에서 생성·전승되며, 서사 내 행위 범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두 신화의 여성 주인공인 유화와 자청비는 농경 유래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이들은 다른 신화의 주인공들에 비해 여성으로서의 삶과 운명을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특히 두 여성 인물은 남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고,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해 간다는 데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두 여성 인물들은 농경신으로서의 정체성을 남성들과의 대립적 관계

* 한양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속에서 확립시켜 간다. 천상의 남성인물, 자신을 추방하는 친부, 감금 혹은 겁탈하려는 남성들, 이들과의 대립 체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고, 기존 질서체계에서 벗어나며,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숙시킨다. 더욱이 두 여성 인물은 모두 애초의 정인과 재결합하지 못한 채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농경 원리를 형상화한다. 이것은 여성에 의해 혹은 여성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문화와 세계에 대한 발견이기도 하다. 남성과의 결합이 아닌 자생력을 갖춘 대지의 생산력을 획득한 것이다. 최초의 곡식 씨앗은 유희와 같이 땅속에서 윤패되어 자신을 죽여가며 새로운 생명을 가꾸는 것이다. 유희는 기존의 남성들로 대표되는 세계와 결별하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개창했다. 자칭비 역시 문도령이 아닌 정수남이를 선택함으로써 수렵문화 체제에 드디어 농경을 전파하며 농경을 위한 목축문화 체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두 농경신은 곡종의 전파라는 업무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삶과 죽음, 재생으로 반복되는 농경의 원리와 그 속에 담긴 생명과 결실의 의미를 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어: 농경신, 유희, 세경본풀이, 자칭비, 농경원리, 자동지생, 죽음과 재생의 순환, 탐색담의 서사구조

1. 서론

신화는 불가시적 현실을 가시적 현상으로 표현한 것이다.¹⁾ 다른 말로 인간의 시각, 즉 일상의 언어와 논리로 파악되지 않는지만 실재하는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언어와 기호로 표현한 것이 신화인 것이다. 따라서 신화는 근원적이고 원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의미하는 바와 표현하는 것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이중의 꼬임이 존재한

1) H. W. Bartsch ed., *Kerygma and Myth: a Theological Debate*, trans., Reginald H. Fuller, SPCK, 1953, p.47.

Edmund Leach, 『신화로서의 창세기』, 구분인 역, 파란나라, 1995, 1면에서 재인용.

다. 그래서 신화를 읽는다는 것은 또 다른 기호체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해석의 약호를 찾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신화를 통해서 그토록 표현하고자 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원’에 관한 것이다. 물론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많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이야기에서부터, 조상의 기원, 신들의 기원, 마을에 있는 바위, 나무, 못에 대한 기원, 작은 꽃이나 식물에서 수많은 곤충과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과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그 중 이야기 전승집단에서 자신들의 존재론과 연결되어 특히 중요하게 여기며, 근원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기원이 있다.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신성한 것이며, 신성화된 이야기로 전한다. 따라서 신화는 과거, 좀 더 정확히 말해 아주 먼 과거 내지 태곳적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 집단 내부에서 중요시하는 근원적인 것들은 항상 현재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²⁾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신성한 국가나 국조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건국신화가 있다. 또한 삶과 죽음, 우주와 천체, 마을과 공동체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무속신화도 있다. 한국의 신화 중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농경의 시작과 관련된 신화가 있다. 농경의 시작은 인간들의 생산양식의 변화이며, 생활방식의 일대 혁신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같이 중요한 사건 내지 새로운 문화의 기원에 관해 신화가 전승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농업생산 내지 농경원리는 출산과 동일화가 쉬워서 신화에서는 여성의 출산이 곧 곡물 생산과 연결되기도 한다.³⁾ 하지만 한국의 신화 중 엄밀하게 농사의 유래 혹은 농경신의 유래를 전하는 신화라고

2) 모든 공동체에서 기원은 항상 강하게 가치 부여되어 있다. 지금의 현실을 탄생시킨 결정적인 사실과 실재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재현하면서 과거와 현재 사이의 다리를 놓는 것이 창설 혹은 기원신화이다.

Lucian Boia, 『상상력의 세계사』, 김웅권 역, 동문선, 2000, 43~44면.

3) 천혜숙, 「여성신화연구(I): 대모신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 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13면.

잘라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흔치 않다.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대표적인 한국의 농경신이라고 할 만하다. 자청비는 하늘나라에서는 곡식을 얻어와 인간 세상에 전파하며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좌정되는 인물이다. 물론 농경과 관련된 인물과 그것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른 신화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 <송당본풀이>에서 여신 백जू도가 많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것을 남편에게 지시한다. 이 이야기에서 남편 소천국은 수렵과 관계된 인물이며, 아내 백जू도는 농경과 관련된 인물이다.⁴⁾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자청비의 경우처럼 뚜렷하게 곡종(穀種)의 유래와 전파가 소개되고 있지는 않다.

고대국가 시조의 왕후들이 대모신 혹은 대지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기도 한다. 우리의 건국신화는 천상의 부계와 지상의 모계가 결합하거나, 천상 출신의 남성과 지상을 대표하는 여성이 결합하는 것을 기본 패턴으로 보여준다. 하늘과 대칭되는 대지를 상징하는 여성인물인 왕후나 모후는 쉽게 농경신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대표적인 경우로 고구려 신화에서의 유화나 신라 신화에서의 알영을 들 수 있다. 유화는 하백의 장녀로 해모수의 아내가 되었다가 주몽을 낳은 인물인데,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때 곡종을 전해준다. 인간세계에 곡종을 처음 전파한다는 점에서 자청비와 마찬가지로 농경

4) 제주도의 <송당본풀이>에서 농경신의 성격을 지닌 여신을 찾을 수 있다. 이 신화는 남신 소천국과 여신 백जू도의 만남과 헤어짐, 자식출산, 신으로의 좌정을 다루고 있다. 이 신화에서 아내 백जू도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편에게 농사를 지을 것을 지시한다. 고광민은 여신 금백जू를 거친 땅에 최초로 농경의 신비를 발견한 신으로 본다. 현용준은 남신 소천국은 수렵신적 성격을 띠고, 여신 백जू도는 농신적 성격을 띠었다고 하였다. <송당본풀이>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 참고.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송당·세화·서귀당 본풀이의 경우」, 『탐라문화』 2, 제주대 탐라문화여구소, 1983, 113~114면.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17~118면.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59~461면.

기원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알영은 왕의 행차를 따르면서 백성들에게 농사와 양잠을 장려했는데,⁵⁾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알영을 농업신 혹은 곡모신으로 보기도 한다.⁶⁾ 알영이 농업과 관련된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유화나 자청비와 같이 곡종을 전파해서 농사를 일으킨 기원적 성격은 약하다.

유화와 자청비는 이야기 속에서 곡종을 전파하는 인물로, 농경을 가능하게 한 기원적 기능을 하며 따라서 한국의 농경신이라 칭할 만하다. 유화는 한국의 대표적 건국신화인 <주몽신화>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이며, 자청비는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큰 곳 중 농경신에 대한 제의에서 불리고 있는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이다. 이처럼 다른 전승 맥락을 가진 두 신화는 한반도 북쪽과 남쪽에서 생성되고 전승되었다는 데에서도 뚜렷하게 대칭적이다. 하지만 두 신화의 여성 주인공인 유화와 자청비는 농경의 기원과 관련된 공통점을 가지며, 이들은 다른 신화의 인물들에 비해 여성으로서의 삶과 운명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특히 두 여성 인물은 남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고,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해 간다는 데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다르면서도 닮은 두 여성 인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아우르는 논리를 찾을 수 있다면 한국의 농경신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⁷⁾

5) 十七年 王巡撫六部 妃闕英從焉 勸督農桑 以盡地利, 『삼국사기』 권 제1 신라본기.

6) 김기호, 「신화에 나타난 곡모신 모티프의 성격과 고대 한국 농경문화의 기원」, 『한국사상과 문화』 2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300면.

7) 신화의 핵심 이념은 전승집단에게 본질적인 것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신화라는 이야기 갈래가 우리나라에서는 건국신화와 무속신화의 전승맥락의 큰 차이 속에서 대분되기는 했지만 그 핵심 이념은 본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 차원에서 추출된 구조를 통해서 신이 같은 핵심 이념이나 메시지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의에서는 건국신화와 무속신화의 두 체계를 구분하기 보다는 이 같은 맥락에서 농경의 '기원'에 관한 원형적 상상력을 살피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두 서사의 특성이 건국신화와 무속신화라는 신화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들은 논의 과정에서 언급할 것이다.

곡종의 획득이나 농경의 유래와 관련된 다른 민족의 신화는 거의 유형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지상의 유일한 인간 남성이 천상에 올라가 천녀(天女)와 결혼한 뒤 곡종을 얻든지 몰래 훔쳐서 지상으로 내려와 농경이 시작되는 것이다.⁸⁾ 그런데 한국의 농경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희와 자청비의 서사는 이와 확실히 구별된다. 본 논의에서는 유희와 자청비의 서사 구조를 주체와 탐색 가치, 행위 범주를 도구로 삼아 그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사 내 촘촘하게 얽혀 있는 남성들과의 관계양상과 의미를 추적하고 여성 주인공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농경신의 성격과 관련지어 논의할 것이다. 이 논의는 여성, 농경 원리, 남녀 결합과 분리 등의 근원적 주제들에 대한 우리 신화의 원형적 상상력을 살피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서사구조와 탐색 가치

일반적으로 서사의 탐색 가치는 주인공 혹은 주체가 추구하는 대상이다. 서사의 주제 역시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서사는 주인공이 탐색 가치(대상)를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⁹⁾ 서사 내 행위 범주의 특성을 볼 때, 신화 서사는 특히 신격의 명이 전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파송자와 수령자의 관계를 통

8) 최원오,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위계 轉變과 윤리의 문제」, 『비교민속학』 24, 비교민속학회, 2003, 292면.

9) 서사의 형태론 분석을 넘어 의미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던 그레마스(Greimas)는 유한 수의 요소가 유한 수의 방법으로 배치되어 이야기라고 인지하게 되는 구조를 생성하는 문법을 찾았다. 특히 이야기의 의미구조 분석을 위해 ‘주체 대 객체(대상)’, ‘파송자 대 수령자’, ‘원조자 대 적대자’로 행위를 범주화 했다.

A. 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pp.172~191.



해서 잘 드러난다. 건국신화의 경우, 하늘(신)이 명령하거나 파견하는 자가 되고, 핵심 가치인 왕위(왕권)를 주인공이 취하게 된다. 무속신화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읽을 수 있다. 주인공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왕위나 왕권이 아닌 특정한 신직(神職)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¹⁰⁾ 이 같은 서사 내 행위 범주의 관계들을 ‘유화의 서사’와 ‘자청비의 서사’에 적용시켜 보기로 한다.

1) 유화의 서사

유화는 자청비와 같이 독립된 자신의 이야기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유화에 대한 가장 상세한 이야기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일대기를 그린 장편 서사시 <동명왕편>에 전한다. 이 밖에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에 주몽의 활약상과 함께 유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유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하백의 장녀인 유화
- (2) 천자(天子) 해모수와 유화의 만남
- (3) 해모수와 하백의 만남과 사위로서 자격 시험
- (4) 혼인 후 해모수에게 유화가 버림받음
- (5) 소박당한 유화가 하백에게 별을 받고 쫓겨남
- (6) 유화가 물가에서 생선을 훔쳐 먹고 삶
- (7) 유화가 금와에게 붙잡혀 별궁에 갇힘
- (8) 유화가 일광(日光)에 감응하여 알을 낳음
- (9) 알을 깨고 주몽이 태어남
- (10) 유화가 주몽에게 준마를 고르는 지혜를 가르침
- (11) 금와 왕자들의 협박을 피해 탈출한 주몽에게 곡종을 전해 줌
- (12) 주몽이 세운 고구려에서 유화가 부여신으로 추앙됨

10) 오세정, 「무속신화 속 탐색 가치와 여성주체의 의미」, 『기호학 연구』 26, 한국기호학회, 2009, 261면.

(1)은 유화에게 새로운 사건이 생기기 전, 다시 말해 안정적이고 무표적(無標的)인 상태를 의미한다. 강신의 장녀로 태어나 물가에서 목욕을 즐기며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2)에서 (4)까지는 부여의 제왕이자 천신의 후예인 해모수를 만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천제(天帝) 혹은 천자(天子)로 기록되어 전하는 절대자 해모수는 유화를 납치해서 취한다. 이후 아버지 하백이 남편 해모수를 만나 두 사람은 정식 부부의 연을 맺지만, 바로 그 순간 해모수는 아내 유화를 버리고 혼자 가버린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친딸을 가엽게 여기기는커녕 하백은 오히려 벌을 내리고 삶의 터전에서 추방한다. 이야기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내용에서 여성 주인공 유화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대상을 탐색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모수가 유화를 취하고, 혼인을 성취하고자 한다. 해모수의 능력을 검증한 후 하백은 유화를 해모수에게 시집보내려 하지만 해모수는 유화를 떠난다.

(6)~(7)의 내용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 유화의 험난한 여정을 다루고 있다. 유화는 물새의 형상을 하고 강가에 숨어 살면서 어부의 그물에 걸린 생선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결국 붙잡힌 유화는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기이한 형태로 말미암아 부여왕 금와에게 보고되고, 금와에 의해서 다시 여인의 형상으로 돌아온다. 여기까지의 내용에서도 여전히 유화는 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이번에는 금와라는 새로운 강력한 힘을 가진 남성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하백의 장녀에서 해모수의 아내로, 다시 추방되어 기이한 형체로 살아가다가 낯선 나라 궁궐의 별궁에 갇히게 된 유화. 그런 유화에게 일광(日光)이 비치고, 결국 유화는 주몽을 회임한다. (8)~(12)까지의 내용은 주몽의 활약상이자 동시에 유화의 최종 정체성 확립에 관한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유화는 농경신의 위상을 세상에 드러낸다. 졸본지역으로 도주하는 아들 주몽에게 곡종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주몽을 낳고, 키우고, 가르침을 주고, 건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곡종을 전함으로써 이제 유화의 위상은 버림받은 여인이나 유폐되고 감금된

여인에서 제국의 어머니로, 대모신으로 변모한다.

유화의 임신은 자신이 스스로 원했다기 보다 일광으로 상징된 힘 혹은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유화의 임신에서도 주체는 ‘일광’이고 탐색 가치가 유화와 유화의 잉태라 할 수 있다.¹¹⁾ 주몽이 태어나자 그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화는 시종 대상에서 머물다가 처음으로 파송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몽에게 탈출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주문하며, 주몽에게 곡종을 전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유화의 서사에서 행위 범주를 살펴 볼 때 유화는 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하며, 주로 탐색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주몽이 태어나서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원조자 내지 파송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대상이 아닌 다른 행위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유화의 기능변화는 신화의 서사전개상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건국신화에서는 주체가 왕위를 탐색하는데, 이때 파송자 내지 원조자는 절대 신격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군신화>에서 환인이 환웅에게 인세(人世)를 다스리게 허락하며, <수로신화>에서는 천신(천상의 소리)이 수로를 지상으로 파견한다. <주몽신화>에서 유화는 주몽이 나라를 세우게끔 명하는 자이며, 나라를 세우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가치인 곡종을 전달하는 인물로 다른 신화에서 절대 신격의 파송자 기능을 고스란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¹²⁾

11) 유화와 가장 유사한 신화 속 여성 인물로 <단군신화>의 응녀가 있다. 하지만 응녀는 사람이 되고자하는 가치를 탐색하는 주체이며, 잉태(단군)라는 가치를 탐색하는 주체이다. 다시 말해 응녀는 시종 주체로서 서사 내 행위자가 되지만 유화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12) 이 점은 <주몽신화>가 다른 건국신화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국 주인공들이 부계 혈통의 신성성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건국을 정당화하는데 반해 주몽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해모수의 성씨를 버리고 고(高)로 성을 바꾼다. 후대 고구려인들이 주몽과 더불어 유화에게 제사를 지낸 점을 볼 때 유화의 파송자 기능에 대한 절대성과 신성성을 엿볼 수 있다. 유화의 행위 범주의 변화는 이후에 다시 논하기로 한다.

2) 자청비의 서사

자청비의 이야기를 다룬 <세경본풀이>는 한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적극적인 여성영웅을 다룬 장편 서사시이다. 많은 신화에서 여성들은 운명에 의해 내쫓기거나 어쩔 수 없이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유화 역시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에 반해 자청비는 스스로 운명을 선택하고, 우주여행을 시작한다. 자청비의 신화는 제주도 지역에서 몇 편 채록되어 보고되었다. 구술로 전승되다보니 이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큰 이야기 열개는 단일하다고 볼 수 있다.¹³⁾ 다른 신화에 비해서 분량이 많은 <세경본풀이>를 자청비의 행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김진국 부부)의 기자정성으로 자청비가 태어남
- (2) 천상 존재인 문도령을 만나 남장한 채 동문수학함
- (3) 문도령과 헤어짐
- (4) 몸종인 정수남이가 겁간하려하자 그를 속인 후 죽임
- (5) 정수남이를 죽였다고 해서 부모로부터 쫓겨남
- (6) 문도령을 찾아 나섰다가 노인할멈의 도움을 받음
- (7) 노인할멈에게 쫓겨났다가 선녀의 도움으로 문도령과 만남
- (8) 문도령 부모에게 어렵게 허락을 받아 부부가 됨
- (9) 난이 발발하자 (문도령 대신) 출정하여 평정함
- (10) 자청비가 (문도령과) 정수남이를 회생시킴
- (11) 문도령의 첩과 갈등을 빚자 곡종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옴
- (12) 지상에 와서 중세경이 됨(문도령은 상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

13) 박경신은 강일생 구연본, 안사인 구연본, 한행수 구연본, 한상수 채록 본, 박봉춘 구연본을 비교해서 이본별 특징을 구명했다. 이 논의에 따르면 각 구연본별로 전체 이야기 골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285~294면).

(1)에서 볼 수 있듯이 부잣집에서 기자정성으로 고귀하게 태어난 자청비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여기서 전체 서사의 주동력이자 서사가 유표적(有標的)으로 전환되는 일대 사건은 바로 ‘문도령과 만남’이다. 문도령은 천상존재이며 그를 보고 한 눈에 반한 자청비는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험난한 여정을 선택하게 된다. (3)~(4)까지의 내용은 문도령과 헤어진 이후 고달픈 삶이 잘 드러난다. 몸종인 정수남이의 겁탈 위협에 시달리고, 자신을 겁탈하려한 몸종을 응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쫓겨난다. 딸의 존재보다는 노동력을 더 귀하게 여긴 자청비의 아버지는 자청비를 추방한다. 여기까지 내용에서 서사 내 행위 범주의 핵심은 가치를 탐색하는 인물은 자청비이며, 그녀가 탐색하는 가치는 문도령, 혹은 문도령과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방해하는 자가 정수남이와 그를 옹호하는 아버지이다.

쫓겨난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하는 대목이 (6)~(8)까지 이어진다. 자청비와 문도령이 정식 부부가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다양한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문도령의 부모에게 정식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 솥불위 칼선다리를 통과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격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져야 하는데 자청비의 운명은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 행위 주체인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정식 혼례를 탐색 가치로 삼는다. 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적대자는 시부모와 자청비의 연적이다. 서사의 시작에서 여기까지 자청비는 행위 주체이며 대상은 문도령 혹은 문도령과의 결합임을 알 수 있다.

이후 (9)~(11)대목에서는 새로운 시련에 부딪히게 된다. 남편인 문도령 대신 전쟁에 참가하기도 하며, 문도령을 질투한 이들에 의해 남편이 죽게 된다. 이본에 따라서는 첩과의 갈등을 빚어 문도령과 헤어지게 이른다. 전란을 평정하고, 죽은 문도령과 정수남이를 살려내는 과업까지 완수한 자청비는 하늘에서 받은 곡종을 가지고 인간세상으로 돌

아온다. 자청비는 중세경, 문도령은 상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으로 좌정된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만남을 계기로 탐색 가치를 찾았고, 서사의 거의 전 과정에서 문도령과의 온전한 결합을 추구해 왔다. 이를 위해 시련을 견디고 난관을 헤쳐온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 결말에 와서 주인공 자청비가 탐색하는 최종가치가 변하면서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자청비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탐색 가치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탐색 가치인 문도령과의 결합을 거부하고 곡중 내지 세경신으로서의 신직을 최종 탐색 가치로 선택한다.

이상에서 유희와 자청비의 서사 분석을 통해 비교해서 정리해 보자. 유희는 자청비와 달리 서사 내 가치를 스스로 탐색하는 주체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전체 신화 서사에서 핵심 가치가 ‘신직’ 혹은 신직을 받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고, 주체는 신으로 변신하는 인물이다.¹⁴⁾ 자청비는 이러한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건국 신화에서는 새로운 나라 건국이 핵심 가치가 되며, 건국의 주인공이 주체가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유희는 독립된 서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주몽신화>에서 자신의 아들인 주몽의 건국 이야기에서 당당한 주체가 아닌 보조자 내지 파송자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유희는 단순히 건국신화에서 주인공을 원조하는 기능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주몽에게 건국을 위한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 파송자라는 점(부여를 벗어나 건국할 것을 요구, 주몽에게 곡중을 전달)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희는 주몽에게 핵심 가치를 전달

14) 건국신화에서 여성 주인공이 과제를 완수하고 획득하게 되는 가치는 무속신화의 신직에 해당하는 가치이다. 이것은 주로 건국주인공의 아내 혹은 어머니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국의 주인공인 초대왕은 인간적 존재로서 성취하기 어려운 존재론적 위상이다. 이는 인간에서 신으로 변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신화 서사의 핵심 가치이자 변신 주지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아래 글 참고. 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하는 신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존재론적 위치에 걸맞지 않는 시련을 겪는 과제 해결자이기도 하다.

유화와 자청비 두 여성인물의 서사 내 행위 범주와 기능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결국 곡종을 전파하는 핵심 과업이자 최종 과업은 유사하다. 게다가 유화는 물에서 출발해 천상 인물과 결연했고, 자청비는 지상에서 출발해 천상에서 새로운 지위를 획득했지만 두 인물 모두 최종에는 지상과 관련된 신적 정체성을 획득한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또 유화와 자청비의 서사는 천상의 남성과의 만남과 헤어짐, 아버지로부터의 추방, 새로운 남성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성 주인공과 남성 인물들과의 관계 맺음이 중요한 양상으로 펼쳐지는 서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남성과의 관계양상과 대립 체계

유화가 해모수를 만나면서부터 그녀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최종 성취과제인 국모나 부여신이 되기 위한 자격시련에 해당하는 것이겠지만 다른 건국 주인공의 배우자나 국모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신라나 가야의 건국신화에서는 천상에서 온 국조의 배우자들은 유화와는 달리 시련을 거치지 않는다. 혁거세의 비 알영은 계룡의 옆구리에서 나와 궁궐에서 잘 양육되어 나이가 들자 왕후가 된다. 가락국의 수로의 비 허황옥은 수로에게 시집을 오기 위해 먼 바다와 천상을 여행하여 혼수품을 준비하는 일종의 통과제의의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허황옥은 알영에 비해 특정한 자격 시험을 거쳤다고 할 수 있지만 유화의 그것에 비하면 시련이나 고난이라 하기 어렵다.

유화의 처지에 가장 가까운 경우는 단군의 어머니인 웅녀일 것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웅녀는 천손인 환웅과 정상적으로 혼례를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꿈에서 인간으로 화하는 과정, 임신

을 기원하는 모습에서 다른 여성 주인공에 비해서 힘든 여정을 거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웅녀가 꿈에서 인간으로, 인간 여인에서 단군을 출산한 국모로 변신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론적 정체성을 상승시키는 것임에 반해, 유화는 하백의 장녀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추방당하고, 새로운 남자에게 감금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건국신화의 여성 주인공들에 비해 무속신화의 여성 주인공들은 훨씬 더 혹독한 시련과 자격시험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두 신화 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국신화가 주로 신성한 존재의 출현과 신성혼을 통해 국가 개창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무속신화는 세속적 존재 혹은 비신격인 존재가 인간 존재론적 한계를 뛰어넘어 신격이 되는 것이 중심 과제이다. 따라서 무속신화에서의 주인공은 인간 한계의 극점에 도달하는 인물들이며, 그것을 초월해야 하는 운명 속에 있는 것이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달리 지상적 인물이다. 이 지상적 인물인 자청비가 천상의 인물인 문도령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존재론적 운명을 바꾸는 지난한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 할 수 없었던 일들일 것이다. 무속신화에서 가장 험난한 여정의 주인공으로 흔히 바리공주를 꼽는다. 바리공주가 죽음의 위협과 한계를 넘어 저승으로 가게 되는 원동력은 자신을 존재하게 해 준 부모에 대한 ‘효’라는 윤리적 가치 때문이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효’는 지상최대의 가치이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수행해야 하는 숭고한 이념이다. 바리공주의 시련은 이렇듯 이미 정당화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청비는 그 같은 윤리적 가치나 이념으로 인해 시련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 즉 남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세속적 욕망이 낳은 결과이다.¹⁵⁾

15)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사상사, 1997, 506면.

최원오는 <세경본풀이>에는 애정서사의 성격과 문화영웅서사의 성격이 공존함

자청비에게도 여러번 시련이 닥친다. 천상으로 올라간 문도령을 찾기 위한 여정과 자신을 머느리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부모가 제시한 자격시험은 그나마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정수남이와 사내들의 겁간 위협, 친부로부터의 추방 등은 그녀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다. 또한 온갖 시련과 시험을 통과한 자청비에 대한 문도령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배신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본에 따라서는 자청비는 문도령과 천상에서 헤어지고 홀로 지상으로 내려오기도 한다.¹⁶⁾

이상에 살폈듯이 유화와 자청비의 시련 혹은 자격 시험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시련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랑하는 남자 혹은 남편과의 이별, 새로운 남자의 출현과 폭력 행위, 친부로부터의 추방이 두 주인공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여기에 유화는 주몽의 출산, 자청비는 문도령과 정수남이를 회생시켜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유화와 자청비의 남성 관계에서 형성되는 의미체계를 살펴 보자. 먼저 유화는 해모수, 자청비는 문도령이라는 지상적 인물과 대립되는 천상의 남성들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천상 남성과의 만남은 전체 서사의 첫 유표적 전환점이자 플롯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해모수는 천제의 아들이거나 천제로 나타나는데, 하늘과 땅을 오가며 치세를 하는 막강한 권능을 소유한 인물이다. 물가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취하고 부모에게 가서 자신

을 지적했다. 결말을 놓고 볼 때에는 문화영웅서사이지만 이야기 전반이 문도령과 자청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에 따르면 문화영웅서사의 원형적 모습이 애정서사의 요소가 도입되어 그 구조가 점차 바뀌게 된 것이다(최원오, 「동아시아 구비서사에 나타난 남녀애정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22, 고전문학회, 2002, 7~8면).

16) 가장 오래된 전승본이라 할 수 있는 『조선무속의 연구』에 실린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가 문도령과 결별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정수남이와 함께 농사를 장려한다. 문도령과 결별하고 지상의 농경신이 되는 것으로 전하는 이본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 9-1권에 실린 한행수 구연본이 있다.

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위로 인정받는다. 그의 행동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으며 주저함도 없다. 문제는 해모수가 장인인 하백에게 정식 혼례를 인정받자 곧바로 유화를 버린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후 유화는 해모수를 만나지 못한다. 해모수에게 버림받은 유화는 하백의 장녀로서 누리던 삶을 박탈당하게 되고 결국 금와에게 붙들리는 신세가 된다.

자청비가 사랑한 천상의 문도령은 자청비와 처음 만났을 당시는 글 공부 하러 가던 어린아이였다. 문도령의 출신성분은 지상의 자청비와는 대조적으로 천상의 왕인 문선왕의 아들이다. 문도령을 사모한 자청비는 수년간 동문수학하며 함께 지냈으며, 결국 자신의 신분을 밝혀 사랑의 결실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문도령은 다시 하늘로 가게 되고 자청비는 연인을 찾아 지상에서 천상으로 시련의 여행길에 오른다. 자청비가 문도령 부모에게 정식 며느리로 인정받기까지 시련은 계속되지만 이 과정에서 문도령의 특별한 역할이나 원조는 없다. 오히려 천상의 전란이 발발하자 자청비가 대신 전쟁에 참가하며, 자청비가 숨겨둔 곳에서 문도령은 다른 여인과 정을 붙여 살기까지 한다.

두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공통점으로 아버지에게서 추방당한다 점을 들 수 있다. 유화의 아버지 하백은 물의 신 내지 물세계의 지배자이다. 자청비의 아버지는 종들을 거느리고 사는 부잣집 가장이다. 이본에 따라서는 천왕제석과 지왕제석의 아들이거나 해와 달과 관련된 부모를 둔 고귀한 혈통으로 나온다. 유화는 하백이 어렵게 성사시킨 혼례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쫓겨나며,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죽였다는 이유로 추방된다. 아버지는 가장이며 집단의 대표를 의미한다. 또한 딸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을 만나 결국 벗어나야 하는 울타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두 주인공은 정상적인 혼례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를 잘못 만남으로써 추방당하는 지경에 이른다.

배우자 혹은 연인과 헤어지고 아버지에게서 추방당한 여성 주인공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유화는 금와에게 잡혀 별궁에 갇힌다. 금

와는 부여국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자이며, 그에게 붙잡힌 유화는 이제 금와의 여자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별궁에 갇힌 형국은 유화와 금와의 만남이 서로간 애정이나 신뢰에 의한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배우자와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유화는 새롭게 등장한 남성에게 의해서 감금된 것이다. 자청비는 문도령이 떠난 뒤 정수남이의 꾀에 빠져 위험한 순간을 맞이한다. 정수남이가 자청비를 겁탈하려 한 것이다. 자청비는 지혜로 어리석은 정수남이를 징치하고 위험한 순간을 벗어난다. 하지만 문도령을 만난 뒤에도 자청비를 노리는 다른 남성들에게 의해 남편이 죽게 된다. 이때에도 자청비의 노력으로 죽은 문도령을 살려낸다. 배우자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유화는 다른 남자에게 붙잡혀 감금되고, 뛰어난 미모의 자청비는 못남성들의 탐욕의 대상이 된다. 두 여성 주인공들의 대처방식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지만 두 여성 모두 새로운 남성들에 의해 위협에 빠진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여기까지 두 여성 주인공과 남성들과의 관계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 같다. 먼저 천상 출신의 고귀한 신분을 가진 남성들과 배우자의 연을 맺게 된다. 그러나 천상의 남성들은 천상으로 가버리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챙겨 여성 주인공을 끝까지 돌보거나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남성 배우자들의 무책임하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해모수의 권능이나 문도령의 혈통을 볼 때 이 같은 관계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주인공들의 존재론적 지위 때문일 공산이 크다. 천상과 지상의 대립체계는 신분적 차이를 유평화시키며, 결국 여성 주인공들에게 새로운 존재론적 비약을 요구한다. 이제 여성 주인공들은 자신의 존재론적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 아버지로부터 추방당함은 결국 여성 주인공들의 애초의 출신성분을 벗어나는 행위로 봐야 한다. 아버지와 그의 세계에서 분리됨은 구질서에서의 축출됨을 의미하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통과의례를 거쳐야 한다.¹⁷⁾ 그녀

들에게 닥친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에서의 시련은 바로 이 ‘전이(轉移)’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금와에게 붙잡혔지만 유화는 주몽을 출산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최종 과제를 수행한다. 자청비는 전란을 평정하고 죽은 문도령과 정수남이를 회생시킨다.

4. 새로운 관계 형성과 농경신의 정체성

유화와 자청비는 이제 남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유화는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탄생한다. 유화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아버지에게 추방당한 딸이라는 불완전한 신분에서 새로운 신분을 획득한 것이다. 유화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어머니로 정체성을 최종 확립한 것이다. 유화는 결국 고구려에서 신으로 추앙받는다. 결과를 놓고 본다면 유화의 이야기에서 그녀의 최종 과업은 고구려의 국모 내지 부여신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 주몽과 더불어 양대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몽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유화가 고구려 건국과 번영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이다.¹⁷⁾ 기록에 따르면 고

17) 유화와 자청비가 본격적인 자격 시련을 겪기 이전에 습속을 볼 때 농경 이전 단계의 생산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 유화가 하백에게 쫓겨나자 강가에서 물고기를 훔쳐 먹으며 연명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 금와에게 잡히기 직전 유화는 밭 속의 물고기를 훔쳐 먹고 있었다. 하백의 징벌로 입이 늘어나 말도 하지 못한 채 물속에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유화의 모습은 마치 물새와도 흡사하다. 하백의 장녀인 유화는 물 세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어로(漁撈)를 생산방식으로 사용하는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청비가 곡종을 얻기 전까지 여러 행적들을 볼 때 수렵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자청비가 자신을 찾아온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내게 한다. 자청비는 손가락을 찔러 나온 피로써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피와 친숙한 수렵인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 남장을 하고 활로 봉새를 잡는 행위는 수렵의 직접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김재용, 『무속 농경문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63면.

구려에서는 10월에 제천을 하였는데 신묘(神廟)가 두 곳에 있다. 하나는 부여신, 즉 유화인데 나무를 깎아 부인상(婦人像)을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고등신으로, 부여신의 아들인 시조 주몽이다.¹⁹⁾ 주몽의 출산 이외에 유화가 한 고구려 건국에 결정적인 도움은 바로 곡종의 전파이다. 주몽이 급하게 부여를 탈출하는 바람에 보리종자를 챙기자 못하자 유화가 새를 보내 주몽에게 전달한다. 굳이 이 삽화가 강조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고대국가 건설에 있어서 농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화는 단지 국조의 어머니로서뿐 아니라, 고구려에서 농경 유래신 내지 곡모신으로서 추앙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⁰⁾

고구려의 신화에서 주몽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지만 유화와 주몽은 다시 만나지 못한다. 그녀는 마치 지하에 갇힌 최초의 씨앗과 같은 운명이다.²¹⁾ 최초로 땅에 뿌려진 곡식의 씨앗인 것이다. 이 곡식은 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 결실은 지상으로 내놓는다. 그것이 바로 주몽이며 고구려인 것이다. 곡종의 운명처럼 유화는 해모수와도 더 이상 재결합을 이루지 못한다. 만약 당금애기처럼 남편에게 버려진 채 홀로 자식을 출산하고 키운 후 재상봉하게 된다면 이것은 곡물의 탄생 과정과 어긋난다. 흔히 신화론에서 여성과 식물(곡물) 재배는 쉽게 연

18) 일반적으로 국조와 그 황후, 혹은 국조와 관련된 부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구려의 경우가 특이하게 국조와 그 어머니를 양대 신으로 추앙하고 제사를 올리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고구려 건국에 유화가 일조한 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高句麗嘗以十月祭天 多淫祠 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像 二曰高登神 云是始祖夫餘神之子 茲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朱蒙云, 『삼국사기』 祭祀조.

20) 동맹이라는 제천의식에서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부여신'으로 섬겼다는 점을 미루어 유화가 신모(神母)의 위상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2006, 18~19면.

21) 서대석은 유화부인이 어두운 방안에 유폐되어 있다가 아이를 낳는데, 이것은 대지가 일정 기간 동안 알을 품었다가 새싹이 트는 것과 등가적으로 인식됨을 지적했다.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268면.

결된다. 대지 및 식물의 신비는 새로운 탄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씨앗의 죽음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장된 생명은 무엇보다도 놀라운 증식을 수반하기 때문이다.²²⁾ 유희가 하백의 물의 세계도, 해모수의 천상 세계에도 가지 못하고 낮선 부여궁에 유폐된 것은 이 같은 ‘씨앗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다.

신화의 핵심 주지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남녀결합’에 의한 것과 ‘자동지생’(自動地生:autochthonous)에 의한 것이 있다.²³⁾ 전자는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식물들이 땅 속에서 발아하여 지상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생명체가 땅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남녀의 결합으로 탄생하지만, 문제는 최초의 인간 혹은 새로운 인간은 그러한 탄생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 신화의 인물들은 범인들과 다른 출생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간의 후예로 태어난 인간이 새로운 인간 시조가 될 수는 없으며,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인물 또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상의 왕은 천상 신격의 후예이거나,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존해서 지상에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몽의 탄생은 어떤 과정으로 파악해야 할까? 유희의 서사를 볼 때 주몽의 탄생은 남녀결합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22) Mircea Eliade, 『세계종교사상사』 1, 이용주 역, 이학사, 2008, 75면.

23) Claud Lévi-Strauss, *Structural Anthropology*, Penguin Books, 1963, pp.214~216.

레비-스트로스는 인간탄생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남녀결합과 자동지생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데 이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바로 <오이디푸스 신화>라고 했다. 이 신화가 인간 창조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논리를 중재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신화가 인간적 경험상 모순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중재의 과정 mediation process이라는 점을 착안할 때, 한국의 신화에서도 이 같은 인간의 창조 원리가 대립적 체계를 찾을 수 있다.

오세정, 『설화와 상상력』, 제이앤씨, 2008, 69~75면 참고.

있다. 유화가 해모수와 동침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유화가 태기가 있어 주몽을 출산한 것은 부여궁에서이다. 문면에는 분명히 일광에 감응하여 주몽을 잉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광이 해모수 혹은 해모수의 기운이라고 확정하기에는 불안전하다.²⁴⁾ 주몽은 처음에는 자신이 해모수의 아들임을 천명하지만, 고구려에서 건국한 후 아버지 해모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몽이 성을 ‘고’씨로 삼는 것은 새로운 지상에서 처음 탄생한 존재, 마치 최초의 씨앗에서 발아한 곡물과 결실에 대한 비유로 읽기에 충분하다. 주몽은 한국의 건국신화 체계에서 남녀 결합에 의한 시조의 탄생이나 천상에서 강림(출몰)한 새로운 시조와 달리 지상에서 출현한 새로운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몽과 고구려의 탄생은 이와 같이 유화로 상징되는 농경 원리, 즉 자동지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살폈듯이 신화에서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사 내 파송자, 즉 건국을 명령하는 자가 있다. 당연히 이들은 절대 신격이나 초월적 존재로 표상된다. 주몽에게 건국을 지시하고 명하는 자는 그의 어머니인 유화이다. 버림받고 쫓겨나고 유폐되었던 유화가 어느 순간 주몽에게 건국을 명하고 곡종을 전하는 파송자가 된다. 이 같은 서사 내 행위범주의 변화는 결국 유화가 존재론적 위상을 높여 새롭게 변신했음을 의미한다. 유화는 혼자서 주몽을 출산함으로써 대지의 풍요로운 자생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대지의 여신이 된 유화는 이제 곡종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간세계에 그것을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자칭비는 문도령을 회생시키고 전란을 평정하여 자신의 존재론적 위상을 드높이나 문도령의 우유부단함에 실망하여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지상으로 내려온다. 자칭비는 천상의 시집에 정식 며느리로 인정받기

24) 주몽의 부계는 불확실하다. 임재해는 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가 아니라 금와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확실한 것은 주몽의 어머니가 유화라는 점뿐이다. 임재해,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민속원, 2006, 133~135면.

위해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 그런데 결국 천상이 아닌 지상을 선택한 것은 결국 문도령 집안의 며느리를 포기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문도령 과도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본에 따라 <세경본풀이>의 결말이 자청비와 함께 문도령이 지상으로 와서 상세경이 되었다고 전하는 전승 본도 있고, 문도령과 결별하고 정수남이와 농경신이 되어 인간 농사를 관장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지상에서의 문도령과의 재결합은 이야기의 논리 전개와 정수남이와의 관계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구술전승되는 과정에서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내는 관습에 의해서 문도령이 이름뿐인 상세경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²⁵⁾

25) <세경본풀이>의 결말 부분의 모호성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한다. 초기 연구를 선도한 박경신은 자청비와 문도령 사이에 자식이 없는 이유를 농작물이 1년 주기임을 들어 1년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자청비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박경신, 앞의 글, 300면). 여기서 문도령과 자청비가 화해하고 지상에서 부부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천상의 남편과 지상의 아내는 상세경과 중세경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후 논의 중에서는 문도령과 자청비의 ‘상·중’의 의미체계를 높고 낮은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컨대 고은지는 자청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에 근거하여 상세경-중세경-하세경의 위계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자청비가 문도령과 정수남이의 두 남성 관계에서 그 중심에 자리잡아 새로운 관계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보았다. 정인혁은 자청비를 통해 실현되는 가치가 선과 악, 천상과 지상과 같은 이분법 대립체계가 아닌 조화로서의 ‘중’의 의미를 찾았다.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73면.

정인혁, 「<세경본풀이> 세계관 재고-‘中’ 세경 자청비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365~368면.

이 같은 논의는 기본적으로 자청비가 농경신으로 좌절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도령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박경신은 바리공주나 당금애기 등은 결혼 후 출산을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청비가 문도령과 혼인하였음에도 자식이 없는 것을 전혀 불편해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를 곡물의 생멸 주기로 본 것이다. 하지만 <성주본가>에서 황우양부부도 자식이 없다. 성주신과 지신이 되어 각자 직능을 부여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굳이 자식이 있어야만 신화의 부부관계가 완결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상’에 대비되는 ‘중’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읽어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중’의 의미가 천상과 지상의 연결고리이거나 조화의 이념이라고 하기에 농경의 신으로써

스스로 원해서 천상 세계로 올라간 자청비가 왜 인간들에게 곡종을 전파하고 지상에서 살 생각을 했을까? 많은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과업을 완수한 그녀가 천상세계를 떠난 것은 논리상 수궁하기 어렵다. 바리공주가 타계로 간 이유는 지상의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이며, 생명을 구하자 지상으로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고 바리공주는 애초에 지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여행을 시작한 것이다. 반면 자청비는 지상의 생가에서 추방당하고 연인을 찾아 낯선 타지로 갔으며, 그 여행의 목적지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는 천상세계이어야 한다. 그런 자청비의 지상행에는 무수한 시련을 겪고 존재론적 지위를 상승시켰지만 결국 천상 세계를 떠나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말을 거꾸로 타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문도령을 보고 자청비는 천상을 떠날 마음을 굳힌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천상의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 몸부림치던 때와 달리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자 더 이상 천상의 가치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전란 평정의 대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마다하고 곡종을 선택한 것은 결국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지상이며, 지상에 새로운 가치를 전하고 싶은 새로운 욕망이 생긴 탓이다. 자청비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²⁶⁾ 곡종을 가진 자청비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지상적 여성이 아니다. 남성에게 종속되어 남성과 결합해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스스로 대지의 자생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태초의 어머니인 대지는 배우자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임신할 수 있는 존재로 상상

자청비와 정수남이에 비해 문도령의 역할과 존재는 너무나 미미하다.

- 26) 신화 속 주인공들은 공간 이동 내지 우주 여행을 통해 존재에 대해 눈 뜨고 새로운 문화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이들이 경험한 공간은 개념적 공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개념적 공간영역에서의 경험들은 인물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자신 속의 자리한 근원적인 생명자리에 이르게 한다. 특히 자청비의 경우 그녀가 도달한 지점은 자기존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강진옥, 『신성과의 소통방식』을 통해 본 무속의례와 신화의 공간성 연구, 『비교민속학』 21, 2009, 421면.

된다.²⁷⁾ 자청비가 문도령과 결별하고 곡종을 획득함에 따라 성취한 신성성이 바로 이러한 대지가 갖고 있는 자동지생의 신비스런 능력인 것이다.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회생시키는 것 또한 그녀의 지상행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다. 자신을 겁탈하려한 정수남이를 살려내고 그와 함께 지상의 농경신이 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문도령으로 표상되는 천상 가치를 포기하고 정수남이와 관련된 지상의 가치를 선택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 문면에 정확하게 정수남이와 혼례를 하였다 는 것은 찾아 볼 수 없으나 이제 자청비는 문도령이 아닌 정수남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최종 확립한 것은 확실하다.²⁸⁾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회생시킨 의미는 무엇일까? 이미 자신이 곡종을 소유했고 대지의 출산력을 획득했다. 더구나 정수남이는 자신을 겁탈하려한 악행을 저지른 자인데 말이다. 여기서 농경과 관련된 신화적 사유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수렵사회에서는 남성의 능력이 신비화되었다면,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여성이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인류의 생활 방식이 동물 사냥에서 식물 경장으로 바뀌면서 신화적 상상도 변화하게 된다. 여성에게 신비한 능력, 즉 대지처럼 출산하고 먹여 기르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일반적인 신화적 사유체계는 최초의 경작은 여성의 손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발전한 문화 체계에서 쟁기가 발명된다. 쟁기가 만들어지면서 여성에게 빼앗겼던 생산신의 주도권을 남성이 다시 쥐게 된다는 것이다.²⁹⁾

27) 안진태, 『엘리아데·신화·종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308~309면.

28) 권태효는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와 정수남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 신화의 독특성을 논하고 있다. 그는 정수남이와 자청비가 결국 부부관계가 된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목축신인 하세경이 된 정수남이에 비해서 상세경이 되었다는 문도령은 그 기능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권태효,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87~88면.

29) 안진태(2005), 앞의 책, 309면.

이러한 생산신의 사유 단계를 고려할 때, 자청비의 서사는 문도령으로 대표되는 천상의 신성성에서 여성이 갖는 대지의 출산력으로 초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청비와 정수남이의 새로운 관계 맺음은 농경문화 체제 내 목축문화를 흡수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수남이는 쟁기로 상징되는 농경문화 내에서의 남성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 단계로 혹은 다른 문화 단계로 보아야 한다. 자청비로 인해 시작된 농경문화 체제 내에서 과거의 목축문화가 새롭게 변화하는 국면이다. 처음 소와 말과 같은 가축을 키우고 돌보는 것은 최초 수렵 단계에서 발전한 것으로 양식(養殖)의 생산양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청비로 인해 농경이 시작되자 가축은 이제 고기 제공이라는 음식원이 아닌 농경을 위한 노동력의 원천이라는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갖게 된다.³⁰⁾ 실제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백중날 민속을 보아도 정수남이의 신격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³¹⁾ 다시 말해 정수남이의 죽음과 회생은 생산양식과 문화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정수남이로 상징되는 목축문화의 이 같은 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자청비에 의한 농경문화의 시작이다.

지상의 남성이 천상의 천녀에게 곡종을 얻거나 몰래 훔쳐오는 다른 민족의 농경 유래신화와 달리 한국의 신화는 여성들의 삶의 전반을 통해 새로운 생산양식과 문화체계로의 전이 과정을 보여주며, 농경과 생명의 원리를 직접 구현하고 있거나 그 원리를 습득하고 있음을 보여준

30) 『고려사』에 실려있는 탐라국 건국신화에서도 제주도의 곡물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땅에서 태어난 세 신인은 수렵으로 먹고 살다가 바다 건너온 세 처녀를 만나 혼인한다. 세 여인은 송아지, 마가지, 오곡의 종자 전파한다. 우리의 곡물기원신화는 목축과 기원과 밀접한 상관을 갖고 전승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권태효, 「한국 생산물기원신화의 양상과 성격」,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417~418면.

31) 제주도에서는 7월 14~15일경 본향당을 중심으로 당굿을 하는데, 이것은 목축신인 정수남이에게 제를 올리며 마소의 변성을 비는 것이다.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274~275면.

다.³²⁾ 다른 민족의 신화에서는 천상의 여인에게 얻은 곡식을 지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과 결별해야 한다. 이러한 신화는 천상의 가치를 지상에 최초로 이입시킨 남성 주인공의 문화영웅으로서의 자질을 강조한다. 하지만 유희와 자청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신화는 여성 주인공이 남성들과의 결별을 통해 단순히 곡종을 획득·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까지 나아간다. 이후 새로운 남성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꾀하고 있다. 요컨대 유희와 자청비는 남성들과의 관계들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탐색 방식을 알게 되고, 새로운 관계 맺음의 구도를 보여줌으로써 농경신의 위상을 온전히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5. 결론

유희와 자청비는 최초로 곡종을 전파하여 지상의 농경을 일으킨 신들이다. 하지만 두 여성인물은 상당히 다른 성격의 소유자이며, 서사 내 행위 범주와 기능 역시 확연히 구분된다. 유희는 전체 서사 내에서 제대로 주체로서 기능한 적이 없다. 특이한 점은 시종일관 서사 내 탐색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자청비는 서사 속에서 항상 주체로서 움직인다. 많은 적대자들과 대립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겨운 과제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청비는 자신이 추구했던 탐색 가치를 서사 종결부에서 바꾼다. 문도령과의 결혼 후

32) 긴 분량의 <세경본풀이>에서는 서사 내 각종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물이나 민속문화 기원이 소개된다. 좁쌀과 관련된 개미의 허리, 월경에 관한 기원, 장례식 상복 기원, 백중 기원, 메밀 파종 기원 등 많은 기원담들이 대부분 농경과 관련된다.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학회, 2006, 254~255면.

은 천상 질서 속의 편입을 거부하고 지상으로 가져갈 곡종을 선택한다. 또한 유화는 곡종을 어디에서 획득했는가는 드러나지 않은 채 주몽에게 곡종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서사 내 기능이다. 반면 자청비는 곡종을 획득하여 스스로 지상으로 내려와 농사를 일으킨다.

두 여성 인물의 삶을 통해 밝힐 수 있는 우리 신화에서의 농경 원리를 보자. 신화의 핵심 주지인 ‘변신’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이 농경의 원리는 결국 죽음과 재생의 구조이다. 두 여성의 삶에서 삶과 죽음의 교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경신으로 좌정하는 이들의 행적에는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뜻하는 공통적인 현상이 발견된다. 삶과 죽음이라는 상반된 현상을 문제 삼으면서 삶과 죽음의 연관성, 즉 그 상호 모순적인 현상이 어떻게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³³⁾

유화는 자신이 곡종과도 같은 삶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추방되고 별궁에 감금되는 것은 결국 죽고 다시 살아나는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태어나는 곡물의 재생 원리에 대한 은유이다. 유화의 여정을 햇빛 쬐기(해모수와의 만남), 물기 머금기(하백의 세계), 땅속에 묻힘(금와의 별궁 유폐), 결실(주몽 출산)로 본다면 더더욱 확실한 유사성을 획득하게 된다. 반면 자청비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수행한 다양한 과제와 죽은 자를 살리는 행위를 통해 재생의 원리를 재현하고 있다. 유화가 곡종에 대한 거대한 은유를 형상화한다면, 자청비는 서사 전편에 나타나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농경에 필요한 경영법과 곡물의 육성 원리를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여성인물들은 농경신으로서의 정체성을 공통적으로 남성들과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확립시켜 간다. 처음 인연을 맺는 천상의 남성인물, 자신을 추방하는 친부, 감금 혹은 겁탈하려는 남성들, 이들과의 대립 체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고, 기존 질서체계에서 벗어나며, 시

33) 강진욱,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330면.

련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숙시킨다. 남성들과의 관계 맺기와 분리를 통해 여성 주인공들은 구질서에서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반복한다. 이 또한 삶과 죽음, 재생의 과정을 몸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두 여성인물은 모두 애초의 정인과 재결합하지 못한다. 이는 한국 농경신의 성격을 응축시켜 나타내고 있다. 생명의 기원은 남녀의 결합과 땅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크게 양분된 가치체계를 이룬다. 농경의 원리는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자동지생에 의한 것이며, 이는 여성에 의해 혹은 여성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문화와 세계에 대한 발견이기도 하다. 최초의 곡식 씨앗은 유화와 같이 땅속에서 윤희되어 자신을 죽여가며 새로운 생명을 가꾸는 것이다. 유화는 기존의 남성들로 대표되는 세계와 결별하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개창했다. 자청비 역시 문도령이 아닌 정수남이를 선택함으로써 수렵문화 체제에 드디어 농경을 전파하며, 농경을 위한 목축문화까지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두 농경신은 곡종의 전파라는 업무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삶과 죽음, 재생으로 반복되는 농경의 원리와 그 속에 담긴 생명과 결실의 의미를 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부식, 『삼국사기』, 이강래 교감, 한길사, 2007.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민족문화추진회, 1980.
 일연, 『삼국유사』, 김원중 역, 민음사, 2009.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236~318면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266~300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조은문화사, 2002, 311~348면.

강진옥, 「신성과의 소통방식」을 통해 본 무속의례와 신화의 공간성 연구, 『비교민속학』 21, 2009, 387~438면.

-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307~345면.
-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송당·세화·서귀당 본풀이의 경우」, 『탐라문화』 2, 제주대 탐라문화여구소, 1983, 127~160면.
-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53~76면.
- 권태효,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77~110면.
- _____, 「한국 생산물기원신화의 양상과 성격」,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413~436면.
- 김기호, 「신화에 나타난 곡모신 모티프의 성격과 고대 한국 농경문화의 기원」, 『한국사상과 문화』 2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279-308 면.
-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53~74면.
- 박경진,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283~303면.
-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1~579면.
-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2006, 233~262면.
- 안진태, 『엘리아데·신화·종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1~645면.
- 오세정, 「무속신화 속 탐색 가치와 여성주체의 의미」, 『기호학 연구』 26, 한국기호학회, 2009, 249~273면.
- _____, 「한국 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67~96면.
- _____, 『설화와 상상력』, 제이앤씨, 2008, 1~338면.
-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267~300면.
- 임재해,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민속원, 2006, 1~428면.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사상사, 1997, 1~506면.
-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

- 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55~482면.
- 정인혁, 「〈세경본풀이〉 세계관 재고-‘中’ 세경 자청비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343~373면.
- 천혜숙, 「여성신화연구(I): 대모신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 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103~126면.
-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2006, 363~394면.
- _____,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에 나타난 남녀애정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22, 고전문학회, 2002, 3~34면.
- _____,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위계 轉變과 윤리의 문제」, 『비교민속학』 24, 비교민속학회, 2003, 275~305면.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534면.

A. 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pp.1~262.

Claud Lévi-Strauss, *Structural Anthropology*, Penguin Books, 1994, pp.1~400.

Edmund Leach, 구본인 역, 『신화로서의 창세기』, 파란나라, 1995, 1~150면.

Lucian Boia, 김웅권 역, 『상상력의 세계사』, 동문선, 2000, 290면.

Mircea Eliade, 이용주 역, 『세계종교사상사』 1, 이학사, 2008, 760면.

Abstract

Yuhwa and *Jacheongbi*'s identity as agricultural goddess
of Korean mythology—focusing on the opposition system
with male characters

Oh, Se-jeong

Yuhwa is a heroine in Korea's representative foundation myth <Jumong-myth> and *Jacheongbi* is a heroine in shaman agricultural myth <Segyeong-bonpuri>. The <Jumong-myth> is written myth and transmitted in the north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egyeong-bonpuri> is oral myth and transmitted in the Je-ju island. In addition, each heroine showed the opposite behavior categories. But each female protagonist as the heroine of the myth has a common feature as agricultural origin. In addition, these women showed the women's lives and fate better than the other characters in Korean mythology. Also the journey of two women's life can be summarized as meeting and parting with men.

Yuhwa and *Jacheongbi*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formed the opposition system with male characters; the first lover who is from the heaven, the father who expels daughter and the tough and strong guy who imprisons or tries to rape woman. In the system heroines quested new value and got out of old culture and world. *Yuhwa* broke the old world and made a new world by helping her own son. *Jacheongbi*'s choosing *Jeongsunami*, not *Mundoryoeng* made possible to introduce the agricultural culture and system on the ground. Through the course of their life *Yuhwa* and *Jacheongbi*

were setting up their own identity as the agricultural goddess. They acquired a rich production of the earth through the journey of own life.

Key words : agricultural goddess, *Yuhwa*, *Segyeong-bonpuri*, *Jacheongbi*, agricultural ideas, autochthonous, the repetition of life and death, narrative structure of quest tale

논문투고일: 2010.9.30 / 심사완료일: 2010.11.10 / 게재확정일: 2010.11.18